

유상증자에 인수전까지... 우리금융, 비은행 강화 속도전

저축은행 안정적 포트폴리오 재편 1000억 규모 유상증자 안전 결의 에프앤아이도 1200억 유증 추진 포스증권 이어 롯데손해보도 '눈독'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비은행부문 강화에 전념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전체 실적에서 은행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만큼, 비은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전을 결의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번 유상증자를 ▲가계신용대출 점진적 확대 ▲상생금융 확대 ▲부동산대출 비중 축소 등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체질 개선은 물론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회사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비은행 부문 강화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금융 계열 부실채권(NPL) 투자전문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역시 120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번 유상증자로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자기자본이 3200억원대로 증가



서울 소공로 우리금융지주 전경.

/우리금융

하게 된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지난 2022년 1월 우리금융그룹이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향후 NPL 시장 규모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출범한 NPL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 전문회사다. 이번 자본 확충으로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역량 강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올해 비은행 강화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그룹의 핵심 목표로 삼아 증권업 진출을 우선적으로 공표했다.

이후 지난달 3일 이사회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전을 의결했다. 숙원사업인 증권업 재진출을 10년 만에 본격화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증권업 재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보험업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금융은 롯데손보 인수희망서(LOI)를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제출했다.

롯데손보는 자산 기준으로 국내 업계 7위다. 현재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1조2000억원, 경영권 프리미엄, 보험계약마진(CSM)

2조원대를 합하면 롯데손보 매각가는 2조~3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올해 1분기 96%로 금융당국의 관리기준 130%와 비교하면 자회사 지원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의 자본총계와 자회사 출자총액을 고려하면 7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출자도 가능하지만,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이 최근 비은행 부문의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배경에는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우리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 824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7897억원이 은행 순이익으로 은행 의존도가 95.8%에 달한다. 타금융지주의 경우 KB금융(37.1%), NH농협금융(64.7%), 신한금융(70.3%), 하나금융(81.5%) 등 대부분 은행의 의존도가 90%를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유상증자나 증권·보험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 의존도 탈피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은행 강화를 통해 실적개선과 명가재건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오른쪽)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서울시청 3층 회의실에서 '웰킴즈 안심보험' MOU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서울시 카페서 아이가 다치면 치료비 최대 2000만원

한화손해보험이 서울특별시와 함께 '웰킴즈 안심보험'을 판매한다.

◆ '탄생의원 서울 프로젝트' 공동 참여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서울시청 본관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서 '웰킴즈 안심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의 '탄생의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국 최초로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구체적인 보장 내역은 ▲시설소유관리자담보 대인 1인당 1000만원 ▲구내 치료비 담보 1인당 100만원 ▲종업원 배상담보 1인당 1000만원 등으로 구성했다.

보험료는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간 2만5000원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휴게음식점은 2만60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 손보 우수인증설계사 5665명 업계최다 배출

삼성화재가 우수인증설계사가 배출 속도를 높이면서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한다.

◆ 우수인증설계사, 손보업계 최대 삼성화재는 2024년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선발 결과 총 5665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배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우수인증설계사 중 30%가 삼성화재 소속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했다.

삼성화재는 우수인증설계사를 작년 대비 281명 더 배출했다. 설계사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는 단 한 건도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의 13·25회차 유지율을 각각 90·80% 이상 달성해야 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상가 투자수익률 0%대... 코로나 때보다 공실률 높아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 7.3% 서울 중대형 공실률도 8.4% 달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업용 부동산 거래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가운데 우량자산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상반기 'KB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뷰'에 따르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1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54.2%나 급감했다.

반면 고가의 우량 자산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말 대비 3.5% 상

승했다.

연구소는 "상업용 부동산은 지역별로는 서울, 자산 유형별로는 오피스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우량 자산 중심의 보수적 투자 기조가 확대됐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하반기 우량 자산에 대한 거래 풀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 회복세가 백화점과 무점포 소매업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소규모 상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 공실률이 높아졌다.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로 5% 안팎이었던 팬데믹 이전 뿐만 아니라 6%대였던 팬데믹 기간에 비해서도 높았다. 투자수익률은 0.9%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공실률 증가와 임대가격 하락,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와 기준금리 인하시기 지연으로 상가 수요는 당분간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때 인기가 높았던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역시 거래는 일부 살아났지만 저가매물만 거래가 됐다.

서울의 중소형 빌딩 평균 매매가격은 1분기 85억6000만원이다. 작년 2분기 106억2000만원이었던 평균 매매가는 4분기 97억60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9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

도심권의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8.

4%에 달했다.

오피스텔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1분기 매매 거래량은 7000호로 2021년 1분기 대비 54.8% 감소했다. 지난 3월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하며 2022년 9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택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연구소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 성격이 강해 주택시장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매수 수요 회복이 쉽지 않아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銀, 4년간 한국관세사회 자금 관리

상생협력 위한 주거래은행 MOU CMS 도입 ERP 데이터 연계·지원

하나은행이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하나은행은 우선 관세사회 내 통합 자금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고 ERP 데이터를 연계해 효율적인 자금 업무를 지원한다.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

바일 브랜치'를 제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게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각적인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2300여 명의 관세사와 6000여 명에 달하는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해

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